Global Business Report 08-018 | 2008. 06. 09

세계 섬유시장 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세계 섬유시장 동향 / 3

3 1. 미국시장
24 2. ＥＵ시장

Ⅱ. 중국 섬유생산 동향 / 35

35 1. 수출동향
38 2.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41 3. 중국 내 업계 동향

Ⅲ. 신흥 섬유수출국 동향 / 43

44 1. 베트남
56 2. 인도네시아
61 3. 방글라데시
67 4. 인도

Ⅳ. 우리 해외생산체제에의 시사점 / 69

요 약

□ EU와 미국의 대중국 섬유 수입규제 종료 이후 세계 섬유시장에서는 경쟁구도에 변화가 전개되고 있음.

○ 최대시장 미국에서는 경기위축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등 일부 국가로 수입대상국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중국이 전체 시장의 1/3을 점유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저임금 국가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의류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산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쿼터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반면, 베트남 등 신흥수출국들은 일부 품목에서 중국산 대비 가격 우위를 보이며, 미국 시장점유율을 확대 중
- 한편, 2009.1.1일부로 종료 예정인 대중국 섬유 수입제한조치가 연장될 전망은 희박하나, 대베트남 수입모니터링 제도 등 아시아산 저가품의 물량공세에 대한 견제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 EU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점유율 38%), 터키, 모로코, 튀니지 등도 특혜무역을 활용, 점유율 확대 중

- 특히 중국은 2008.1.1일부로 EU가 대중국 섬유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한 이후, 대미 수출물량을 대EU 수출로 일부 전환
-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저임 수출국가들은 EU의 GSP+ 제도 등을 활용하여 EU시장 진출 확대 중

□ 세계 최대 섬유생산국 중국에서는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

○ 단순 봉제제품 위주에서 고급·고가제품으로 이동

○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해외수출 대신 팽창하는 내수시장에 집중

○ 임금상승, 인력난으로 섬유산업기지를 동부연안에서 서부로 이동

□ 미국과 EU의 대중국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은 여타 섬유 수출국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우리 섬유업계의 해외생산기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

○ 구미바이어들의 새로운 구매패턴과 글로벌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제고해야 함.

○ 아울러 저임을 바탕으로 한 저가 봉제제품 위주의 품목구조 대신 고가·고기능 제품의 개발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틈새시장 발굴 필요

I. 세계 섬유시장 동향

1. 미국시장

가. 수입시장 개황

□ 미국 섬유 수입시장은 2009.1.1일부 對중국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전개되는 경쟁구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 지난 2006년 도입된 미국의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34개 카테고리에 적용 중이며, 2008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임.

- 동 제도의 지속 여부가 미국 내 핫이슈가 되고 있으며, 조치 종료 이후 일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도입 등이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미국의 대중국 섬유의류 수입은 증가폭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대신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신흥 섬유수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 미국의 섬유류 시장 전체 수입동향

○ 미국의 섬유 수입시장 규모는 2007년에 물량 기준 531억 평방미터, 금액 기준 964억 달러에 육박

- 최근 3년간 수입량 연평균 4.2%, 수입액 연평균 5.0% 증가

- 미국 내 섬유류 생산기반 약화와 해외소싱 증가가 원인

○ 그러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불안과 이후 경기 불황 심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입증가세 둔화

- 고유가 및 물가 상승 요인까지 작용하여, 2008년 1/4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수입량 -4.6%, 수입액 -3.8%를 보이며 수입 위축 현상 뚜렷

○ 2007년 수입액 중 의류 77%, 섬유 23% 비중

- 원단의 수입액 비중은 전체 수입액 대비 5.7%로 미국 섬유류시장 전반의 꾸준한 성장세와 대비, 정체 내지 감소세

- 나머지는 원사(1.5%)와 기타 완제품(16.1%)으로 구성

〈미국의 섬유류 수입동향〉

구분	수입물량(백만SME*)				수입액(백만불)			
	2005년	2006년	2007년	비중(%)	2005년	2006년	2007년	비중(%)
전체	50,836 (8.3)	52,150 (2.6)	53,113 (1.8)	100	89,206 (7.1)	93,279 (4.6)	96,407 (3.3)	100
의류	22,010 (10.3)	22,539 (2.4)	23,335 (3.5)	44	68,713 (6.1)	71,630 (4.2)	73,923 (3.2)	77
섬유*	28,827 (6.8)	29,610 (2.7)	29,777 (0.6)	56	20,492 (10.5)	21,649 (5.6)	22,484 (4.2)	23
원단	9,522 (2.9)	8,873 (-6.8)	8,619 (-2.9)	16	5,719 (1.4)	5,473 (-4.3)	5,532 (1.1)	6

주: 1. SME = Square Meter Equivalent(평방미터 상당)으로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2. 섬유는 원사, 원단, 홈텍스타일 포함
3.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 미국의 국별 섬유류 수입동향

○ 주요 수입국 집중 현상

- 2007년 미국의 상위 10대 섬유 수입국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 : 중국 포함 7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 주요 수입국들의 점유율 지속 증가. 2007년 상위 5대 수입국 점유율 50% 상회.
  * 38%(2002년) → 46%(2005년) → 54%(2007년)

○ 중국의 압도적 우위

- 중국은 2007년 기준 수입량 214억 평방미터로 점유율 40.2%, 수입액 323억 달러로 점유율 33.5%를 기록

- 중국은 수입량 면에서 2006년 11% 증가에 이어 2007년 14.8%의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입액 면에서는 2006년 20.8%에 이어 2007년 19.4%의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음. (미국 섬유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5~8배 상회)

- 중국산 섬유류 수입규모는 수입량 2위국인 파키스탄보다 6.7배, 수입액 2위국인 멕시코보다 7배 큰 규모

○ 아시아 저임금 섬유 수출국들의 약진

-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대미 의류제품 수출 증가

- 대중국 수입쿼터 조치가 아시아 저임금 수출국들에게 기회로 작용. 대중국 쿼터 적용품목 위주로 수출 증가

- 이들 국가들의 약진은 대중국 수입규제에 대한 반사적 이익 부분이 큰 만큼, 대중국 수입쿼터가 해제된 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상승세는 지속 전망.

- 한편, 홍콩, 한국, 대만 등은 높은 원가 구조로 인해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급속히 점유율 하락

○ 미 인근 국가들, 지역경제 블록화 영향 퇴조

- 2005년 섬유쿼터 폐지로 NAFTA 국가와 카리브 연안국들 특혜 상실

-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 아시아 섬유 수출국들에 비해 인건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열세

- 캐나다, 멕시코 : NAFTA 발효에 따른 비쿼터, 무관세 혜택 효과 상실
  - ·2002년 4위 수입국 캐나다,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멕시코, 중국에 추월당한 후 점유율 급락

- 카리브 연안국 : 대미 무관세 수출 특혜 상실
  - ·2006년부터 미국과 6개 카리브연안국이 체결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이 발효되었으나, 체결국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장점유율 낮아 효과 미미

○ 한국은 2007년 수입량 19억 5,300만 평방미터, 수입액 13억 2,450만 달러로 수입국 중 각각 5위, 19위를 차지

- 한국 시장점유율과 수입국 순위 변동 :
  4%, 5위(2002년) → 2%, 14위(2005년) → 1%, 19위(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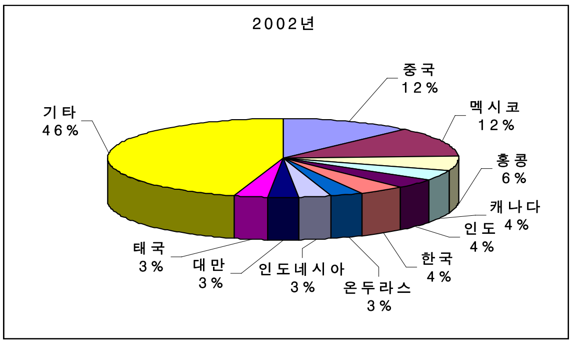
〈미국의 국별 섬유류 수입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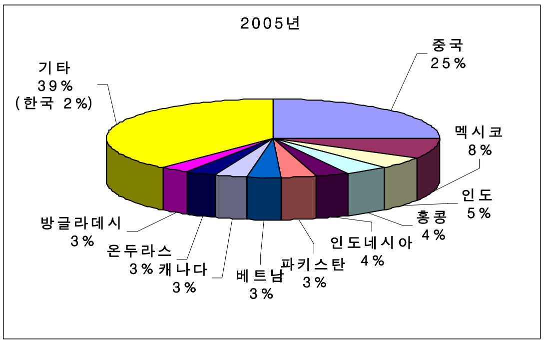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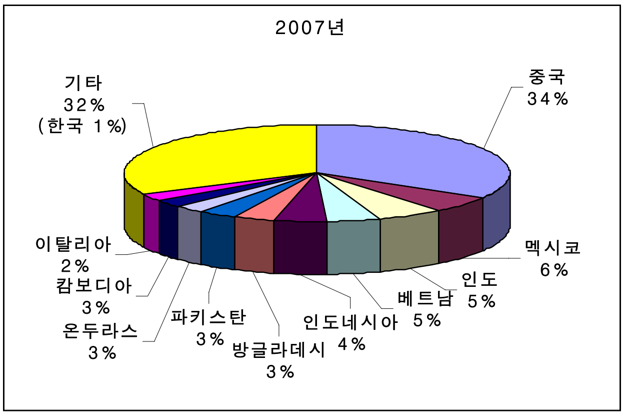
순위	수입국명	2006년		2007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세계 전체	93,278.7	4.6	96,407.4	3.4	100.0
1	중 국	27,067.6	20.8	32,320.4	19.4	33.5
2	멕시코	6,376.3	-12.0	5,625.5	-11.8	5.8
3	인 도	5,031.1	9.0	5,104.0	1.4	5.3
4	베트남	3,396.1	17.9	4,557.9	34.2	4.7
5	인도네시아	3,901.5	26.6	4,206.1	7.8	4.4
6	방글라데시	2,997.9	22.0	3,191.3	6.5	3.3
7	파키스탄	3,250.2	11.9	3,170.3	-2.5	3.3
8	온두라스	2,445.4	-7.0	2,517.9	3.0	2.6
9	캄보디아	2,150.8	24.6	2,435.5	13.2	2.5
10	이탈리아	2,067.9	-3.5	2,233.5	8.0	2.3
19	한 국	1,665.8	-12.7	1,324.5	-20.5	1.4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미국의 국별 섬유류 수입시장점유율 추이〉







자료원 : 미 상무부 섬유국

나. 품목별 수입동향

□ 미국의 의류시장 수입동향

○ 미국의 의류 수입은 최근 6년간 지속적 증가추세

- 2005년에는 WTO의 섬유 수입쿼터 완전 철폐로 수입량이 전년대비 10.3% 증가

- 2005년 당시의 이런 폭등세는 전적으로 최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급등했기 때문이나, 2006년에 2.4%로 증가세가 둔화된 후, 2007년에는 3.5%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임.

- 수입금액 또한 2003년 이후 매년 3~6%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이전에는 수입액 증가율이 5%대였던 반면, 2005년 이후에는 4%대 이하로 낮아짐.

□ 미국의 국별 의류 수입동향

① 중국

○ 중국산 의류는 2007년 물량 기준 80억 3,360만 평방미터, 금액 기준 227억 4,540만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각각 전년대비 23.5%, 22.8% 증가한 것임.

- 미국의 대중국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 중국산 섬유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4년 14%에서 2007년 31%로 상승

- 수입쿼터 대상이 아닌 품목의 점유율은 40~50%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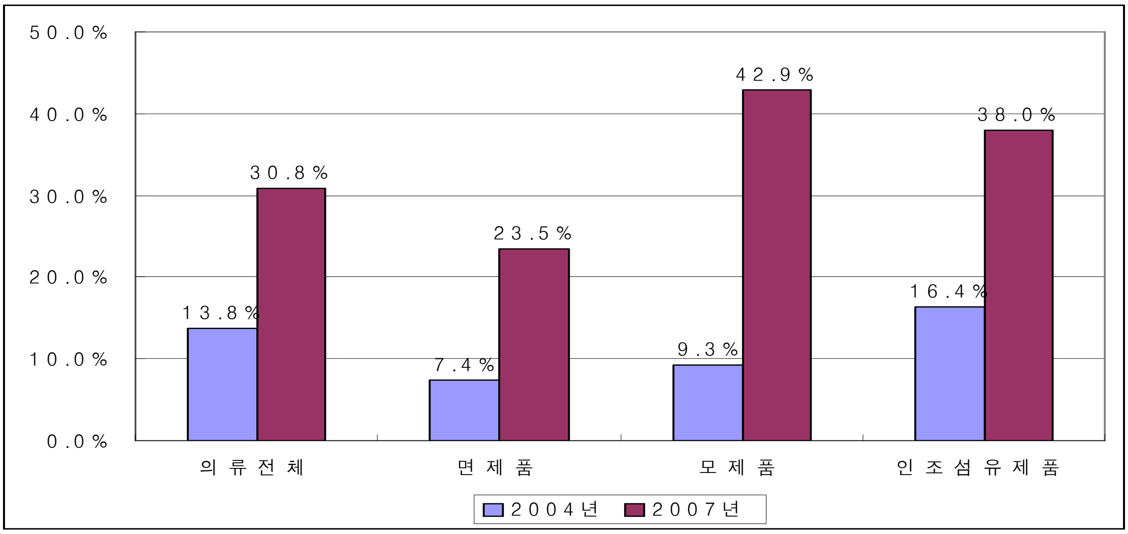
○ 수입쿼터 대상품목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이나 최근 수입량 급증

- 면바지(카테고리 347/348)의 경우, 2007년 수입증가율은 각각 35%, 41%였으나, 점유율은 10%와 17%에 머물러 있음.

○ 반면, 지난 2005년 쿼터가 해제된 품목은 시장점유율 급등

- 여성용 면 편직셔츠(카테고리 341)의 경우,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4년 6%에서 2007년 44%로 급등

〈중국산 의류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변화〉



자료원 : 미 상무부

② 베트남

○ 베트남산 의류제품은 미국 수입시장 내에서 면제품과 인조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지배력을 확대 중

- 2007년 미국의 베트남 의류제품 수입증가율은 35%로 중국, 멕시코에 이어 3위 의류제품 수입국으로 등극

- 그러나 점유율은 아직 5.9%로서 31%의 중국과 대조

〈미국 의류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2007)〉

(단위 : %)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기타
30.1	6.1	5.9	5.4	4.3	4.2	3.4	40.6

자료원 : 미 상무부

○ 베트남의 대미 의류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2006년 WTO 가입 이후, 섬유류에 대한 수입쿼터 해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임.

-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면 니트셔츠, 면바지 등의 대미 수출 증가

-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낮은 생산비 구조로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

③ 기타 국가

○ 2007년 인도네시아의 대미 의류수출 증가율은 8.5%로 28% 증가하였던 2006년에 비해 둔화양상을 보임.

- 경합관계에 있는 베트남의 대미수출 증가가 가장 큰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역할 감소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력품목은 면제품으로, 특히 면 니트셔츠 제품은 지난 2004년에 비해 2007년 대미수출이 2배 이상 증가

- 아울러 여타 동남아 섬유수출국과는 달리 인조섬유 제품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인조섬유 편직셔츠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7%에 이름.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의 대미 의류 수출은 2006년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인 반면, 2007년에는 3~5%대로 성장세 둔화

○ 한국은 2007년 총 2억 530만 평방미터의 물량과 6억 2,700만 달러의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여 각각 25위, 26위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달리 수출 증가율이 30% 넘게 감소한 실적임.

〈미국의 국별 의류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순위	수입국명	2006년		2007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세계 전체	71,629.8	4.2	73,923.1	3.2	100.0
1	중 국	18,517.6	22.3	22,745.4	22.8	30.8
2	멕시코	5,297.1	-12.9	4,523.4	-14.6	6.1
3	베트남	3,222.1	18.3	4,358.5	35.3	5.9
4	인도네시아	3,670.3	27.6	3,981.1	8.5	5.4
5	인 도	3,186.9	7.1	3,169.8	-0.5	4.3
6	방글라데시	2,914.1	22.9	3,103.4	6.5	4.2
7	온두라스	2,440.3	-6.9	2,510.9	2.9	3.4
8	캄보디아	2,135.9	24.7	2,424.9	13.5	3.3
9	홍 콩	2,811.0	-19.9	2,034.8	-27.6	2.8
10	태 국	1,839.7	1.8	1,766.3	-4.0	2.4
26	한 국	912.8	-20.9	627.0	-31.3	0.8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 미국의 국별 원단시장 수입동향

○ 미국의 2007년 원단 수입량은 86억 1,940만 평방미터로 전년대비 2.9% 감소

- 해외생산 확대로 미국 내 외국산 원단 수요 감소가 원인

- 반면, 2007년 원단 수입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단 분야의 수입단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중국산 원단 수입량은 2006년에 9.8% 감소했으나 2007년에는 전년대비 4.5% 증가

- 수입액은 2006년 7.3%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10.2%가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수입량 증가율에 비해 수입액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은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임.
  * 단가상승률 : 17.6%('06) → 6.7%('07)

○ 반면 한국산 원단 수입량은 2006년 8.2% 증가했으나 2007년에는 10.7% 감소함. 한국산 원단 수입액은 2007년 기준 전년대비 6.7% 감소한 55억 3,500만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추세

○ 이탈리아로부터의 원단 수입은 2007년 물량 기준으로 11% 증가했으나 금액으로는 9.3% 증가에 그쳐 수입단가가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인도산 원단 수입량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전년대비 57.7%와 33.8% 증가해 폭등세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1.8% 증가하는 데 그침.

- 2005년과 2006년의 폭등세는 수입단가가 각각 31.6%, 15.4% 하락한 데 기인

○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원단 수입도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에 38% 증가

〈미국의 국별 원단 수입액〉

(단위 : 백만불, %)

순위	수입국명	2006년		2007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세계 전체	5,472.4	-4.3	5,532.0	1.1	100.0
1	중 국	900.2	7.3	991.5	10.2	17.9
2	캐나다	686.5	-12.2	605.5	-11.8	10.9
3	한 국	593.4	-1.9	553.5	-6.7	10.0
4	이탈리아	412.6	-2.3	450.9	9.3	8.1
5	멕시코	396.1	-11.5	409.5	3.4	7.4
6	일 본	310.1	3.2	346.8	11.8	6.3
7	대 만	329.9	-9.8	328.2	-0.5	5.9
8	인 도	173.8	14.3	176.5	1.5	3.2
9	독 일	167.8	-3.1	176.1	4.9	3.2
10	파키스탄	255.2	-14.2	162.4	-36.4	2.9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다. 수입시장 가격동향

□ 섬유류 수입단가 동향

○ 미국의 섬유류 평균 수입단가(FOB 기준)는 2005년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지속 상승

- 이는 중국 등 주요 수입국 제품의 단가상승에 기인

- 중국의 평균단가는 3년 연속 소폭 증가세. 생산비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전략의 영향

- 한국산 섬유류 수입단가는 2007년 평방미터당 0.68달러로 나타났으며, 2006년 전년대비 17% 낮아진 데 이어 2007년에 13% 재하락

○ 베이직한 섬유제품은 경쟁이 치열하여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트렌디하고 독특한 제품은 단가 상승을 주도

〈미국의 국별 섬유류 평균 수입단가 추이〉

(단위 : US$/SM)

순위	수입국명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단가	수입단가	수입단가
-	평균	1.75	1.79	1.82
1	중 국	1.34	1.45	1.51
2	멕시코	1.87	1.86	1.85
3	인 도	1.98	1.90	1.87
4	베트남	3.03	2.96	3.03
5	인도네시아	2.28	2.44	2.59
6	방글라데시	1.87	2.01	2.05
7	파키스탄	0.88	0.91	1.00
8	온두라스	2.08	2.14	2.04
9	캄보디아	2.33	2.47	2.74
10	이탈리아	5.57	6.36	6.76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 미국 의류시장에서는 최근 2년 간 중국산 제품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저가품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의 제품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정체, 온두라스는 하락세

〈미국의 국별 의류 수입단가 추이〉

(단위 : US$/SM)

순위	수입국명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단가	수입단가	수입단가
-	평균	3.12	3.18	3.17
1	중 국	2.57	2.85	2.83
2	멕시코	3.57	3.59	3.74
3	베트남	3.40	3.40	3.42
4	인도네시아	3.49	3.62	3.74
5	인 도	3.77	3.79	3.65
6	방글라데시	2.11	2.23	2.29
7	온두라스	2.10	2.15	2.05
8	캄보디아	2.41	2.53	2.80
9	홍 콩	5.88	5.37	5.68
10	태 국	3.37	3.25	3.38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 중국제품의 가격인상은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신노동법 적용 이후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중국산 의류제품의 미국시장 수입단가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2.3%, 22.8% 상승하여, 지난 2005년 대비 2007년 평균단가는 1.5배로 상승

- 또한, 2006년 도입된 대중국 수입쿼터 이후, 쿼터 대상품목에 대한 중국의 고가·고급화 전략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임.

- 면 니트셔츠 제품인 카테고리 338 및 339의 경우, 2005년 대비 2007년 단가가 각각 119%, 69% 상승

<중국산 의류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내 단가변화>

구 분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2007년 수준 (2005=100)
의류전체	22.3%	22.8%	150
면제품	30.8%	34.8%	176
모제품	22.2%	21.3%	148
인조섬유제품	21.8%	22.7%	149

주 :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원 : 미 상무부 섬유국

○ 반면, 인도산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미국시장에서 중국산과 인도산 의류제품이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음.

- 면 편직셔츠(카테고리 340 및 341)의 경우, 중국산 가격이 각각 다즌당 79.11달러(카테고리 340)와 63.13달러(341)이며, 인도산은 각각 79.29달러와 60.06달러로 나타났음.

○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경우, 폴리에스터 제품에서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수준이 높으나, 면제품에서는 방글라데시와 함께 저가제품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바지제품의 경우, 베트남산은 다즌당 가격이 60달러이며, 방글라데시산은 54.50달러임.

- 그러나 인도산은 85.37달러, 중국산은 87.32달러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 중

〈미국시장 내 주요 의류제품의 국별 가격비교 (2007)〉

(단위 : U$/다즌)

카테고리	품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면제품			
335	여성코트	78.97	105.15	82.92	93.14	68.57
336	드레스	60.16	74.09	79.20	47.71	35.82
338	남성 니트셔츠Q	64.73	45.79	43.10	48.94	24.60
339	여성 니트셔츠Q	53.52	36.28	38.05	37.79	23.73
340	남성 비니트셔츠Q	79.11	76.29	73.34	57.34	46.90
341	여성 비니트셔츠	63.13	60.06	67.78	40.95	38.46
342	스커트	57.55	73.98	55.81	49.50	49.58
345	스웨터	88.47	80.33	75.35	62.74	45.77
347	남성바지Q	87.32	85.37	61.60	60.08	54.50
348	여성바지Q	76.93	70.53	59.35	56.38	51.69
349	브래지어Q	18.77	34.55	29.84	12.02	15.92
352	속옷Q	15.77	13.62	19.96	11.75	8.34
			모제품			
435	여성코트	283.93	244.45	280.13	241.53	218.03
443	남성정장Q	40.95	47.70	45.45	37.58	47.24
444	여성정장	40.81	47.80	-	30.78	-
445	남성스웨터	293.65	169.69	89.38	77.09	136.67
446	여성스웨터	228.90	112.66	59.36	139.67	47.65
			인조섬유제품			
632	메리야스류	4.70	3.76	3.91	3.10	6.12
635	여성코트	103.84	133.62	102.01	122.60	110.26
638	남성 니트셔츠Q	55.25	39.72	53.28	64.61	34.37
639	여성 니트셔츠Q	57.81	63.10	53.48	52.22	39.52
640	남성 비니트셔츠Q	46.96	61.47	57.75	54.24	47.94
641	여성 비니트셔츠	47.22	56.85	48.06	40.45	40.78
642	스커트	65.00	82.67	68.04	60.47	59.12
643	남성정장	12.03	22.20	26.45	21.50	41.16
644	여성정장	15.20	21.69	20.15	11.53	16.42
645	남성 스웨터	62.59	70.47	60.36	80.97	35.53
646	여성 스웨터	67.65	80.03	49.17	55.44	37.99
647	남성바지Q	79.52	63.52	52.74	68.43	36.12
648	여성바지Q	67.96	93.85	62.39	61.66	58.62
649	브래지어Q	34.15	83.02	39.28	44.69	28.04
652	속옷Q	14.38	16.51	17.21	10.13	10.89

주 : Q는 대중국 수입쿼터 대상품목
자료원 : 미 상무부 섬유국

라.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견제

①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 대중국 섬유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China Textile Safeguard)

○ 미국은 현재, 2005년 11월 체결한 미-중 양자간 섬유협정에 따라 ①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량을 사전에 설정, ② 이외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대중국 섬유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대중국 섬유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주요일지〉

2005. 1. 1.	WTO 섬유협정에 의해 섬유 수입쿼터 전면 해제
2005. 5월	중국산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2005. 11월	미-중 섬유협정 체결로 대중국 섬유쿼터 도입 (2006. 1.1 ~ 2008. 12.31 기간 적용)
2009. 1. 1.	미국의 대중국 섬유 수입쿼터 해제 예정

○ 도입내용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년간) 면바지, 브래지어, 수영복, 니트 등 34개 카테고리 중국산 의류에 매년 수입 쿼터 부과

- 기존 일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수입 금지된 모든 품목들은 즉시 수입 재개

- ‘2%~3% 유연성 조항(Flexibility Provisions)’을 설정하여 쿼터의 이월(Carryover)과 조상(Carryforward)을 통한 미세조정 가능성 부여

- 섬유협정에 명기된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권한 유지

〈미-중 섬유협정에 따른 품목별 쿼터량〉

카테고리	품목명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301	Sewing Threads/ Combed Cotton Yarn	Kg	7,529,582	8,659,019	10,131,052
222	Knit Fabrics	Kg	15,966,487	18,361,460	21,482,908
229	Speical Purpose Fabrics	Kg	33,162,019	38,467,942	45,007,492
332/432/ 632part	Socks(plus baby socks)	Doz Pairs	64,386,841	73,963,859	85,058,437
332/432/ 632part-sub	Socks(plus baby socks)	Doz Pairs	61,146,461	70,318,431	80,866,195
338/339part	Cotton Knit Shirts	Doz	20,822,111	23,424,875	26,938,606
340/640	MB, Woven Shirts	Doz	6,743,644	7,586,600	8,724,590
345/645/646	Cotton, MMF Sweaters	Doz	8,179,211	9,201,612	10,673,870
347/348	Cotton Trousers	Doz	19,666,049	22,124,305	25,442,951
349/649	Cotton, MMF Bras	Doz	22,785,906	25,634,144	29,479,266
352/652	Cotton, MMF Underwear	Doz	18,948,937	21,317,554	24,515,187
359s/659s	Cotton, MMF Swimwear	Kg	4,590,626	5,164,454	5,990,767
363	Pile Towels	Strip	103,316,873	116,231,482	134,828,519
666part	Window Blinds/ Window Shades	Kg	964,014	1,084,516	1,268,884
443	Wool Suits, MB	Nos	1,346,082	1,514,342	1,756,637
447	Wool Trousers, MB	Doz	215,004	241,880	280,581
619	Polyester Filament Fabrics	M2	55,308,506	62,222,069	72,177,600
620	Other Synthetic Filament Fabrics	M2	80,197,248	90,221,904	103,755,190
622	Glass Fiber Fabrics	M2	32,265,013	37,104,765	43,412,575
638/639part	MMF Knit Shirts	Doz	8,060,063	9,067,571	10,427,707
647/648part	MMF Trousers	Doz	7,960,355	8,955,399	10,298,709
847	Trousers	Doz	17,647,255	19,853,162	23,029,668

주 : MB = Men's and Boys', MMF = Man-made Fiber
자료원 : US-China MOU

□ 대중국 신규 수입규제조치 도입 전망

○ 미국이 대중국 섬유 특별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조치를 도입할지, 현 조치를 연장할지 등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내 동향 및 의견 수렴은 하반기 이후 모색 전망

- 특히, 2008년 미 경기 불황과 중국산 섬유류 수입감소 현상으로 인해 올 하반기 시장상황 변동 예의 주시 필요성.

- 2008년 미국 대선 일정 고려 시, 올 8월 전후 논의 시작 예상

○ 현 정황상 향후 조치에 대해서 연장안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었으나, 4월 이후부터 신규조치 없이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연장안 전망 근거 :
  (연장할 경우, 기간은 2002년 중국의 WTO 가입시 양국 합의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연장 전망이 일반적)
  · 미-중 양국은 2005년 초반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발생했던 대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있음.
  · 미국섬유연합회(NCTO;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의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연장 요청 압력과 로비 캠페인 전개. NCTO는 현 쿼터제가 종료되면 중국산 의류의 미국과 EU 시장점유율이 65%에 달할 것이며 이는 4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 경고
  · 쿼터제 종료 이후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수입규제조치 주요수단이 될 것이나 이들 조치의 발동은 제약이 많아 실제 시행 및 실효성 여부에 의문
  · 미 의회에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중국산 제품의 미 시장 잠식,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 규제 정서가 팽배. 따라서 일부 미국 의류 수입유통업체들 등의 쿼터 철폐 주장이 의회 측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

- 종료안 전망 근거 :
  · 미 정책담당자와 WTO 사무차장의 입장 표명 - 예정대로 종료될 계획임을 확인

〈미국의 대중국 섬유쿼터 종료 전망〉

○ 지난 4월 초 홍콩에서 열린 Prime Source Forum에서 관련 주요인사 2명이 미국의 대중국 섬유쿼터가 예정대로 종료될 것임을 확인

○ 미 무역 대표부(USTR) 특별섬유협상관 Scott Quesenberry는 "미-중 섬유협정에 따른 쿼터제가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며 WTO 규정에 따라 이후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이어, 2008년 이후 대중국 섬유 수입규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실되나,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의 규정이 있음을 상기

○ WTO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Rufus Yerxa 또한 섬유쿼터 종료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WTO 회원국이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들은 여전히 있다"며 "각국 정부가 수입규제를 위해 새로운 방법(Mechanism)을 찾을 수 있는 창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WTO는 회원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함.

- 이는 미 정부가 WTO 규정 때문에 신규 조치 도입을 못하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 섬유쿼터는 종료되겠지만 신규 조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됨.

· 2008년 중국의 대미 섬유수출 하락세가 감지됨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성 감소. 중국은 생산단가 상승, 위안화 절상, 미국 경기 불황, 베트남 등의 신흥국가와의 경쟁 심화, 중국정부의 섬유산업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 대미 섬유류 수출 급감 전망

· NCTO 주장과는 다소 상반되게, 미 의회연구소(CRS) 조사에 따르면 미 섬유산업의 위축은 90년대부터 발생한 것이며 대중국 섬유 수입쿼터 해제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일반 수입규제조치

○ 대중국 특별 섬유세이프가드 종료 후에는, 2013년까지 적용되는 대중국 일반 세이프가드 제도와 다음과 같은 일반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것임.

① 반덤핑 관세 (AD; Anti-Dumping Duties)
② 상계 관세 (CV; Countervailing Duties)
③ 무역구제조치로서 미국통상법 421조, 422조, 201조, 301조

○ 한편, 반덤핑 관련, 현재 베트남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 모니터링제가 중국에 대해 가동될 가능성도 있음.

② 베트남산 섬유류 수입 모니터링

□ 베트남산 섬유류 수입 모니터링 (Vietnam Import Monitoring)

○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수입 모니터링제를 실시, ① 수입가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덤핑 여부를 주시, ② 상무부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입배경

- 2005년부터 WTO 회원국간 섬유 쿼터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비회원국인 베트남의 경쟁력이 약화, 섬유류 대미 수출이 대폭 하락한 바 있음.

- 2006년 11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섬유 쿼터제 제한이 없어짐. 아울러, 같은해 12월 미국 정부로부터 PNTR(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받아 베트남의 대미 수출 환경이 개선됨.

- 이에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의류 수입 급증과 함께 덤핑을 우려. 베트남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되는 2007년 1월부터 주요 감시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모니터링 시작.

○ 도입내용

- 베트남산 섬유류 수입제품 중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 주요 감시품목(Trousers, Shirts, Sweaters, Underwear, Swimwear)을 시작으로 모니터링 실시 후 덤핑 여부와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 감시 품목은 지속 조정됨.

- 미국 생산업체가 제소해야 착수하는 반덤핑 조사 절차에 대해 업체가 제소하지 않아도 상무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함.

- 덤핑률이 2% 이상일 경우 반덤핑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이후 5년간 매해 재심을 받아야 함. 덤핑률은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국의 내수 가격과 해외판매 가격을 비교해 산정하나, 베트남의 경우 비시장경제국이므로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함.

- 동 모니터링제는 2008년 현 미 정부 임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무부는 현재 6개월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 향후 전망

○ 미 상무부는 현재까지 2007년 1월~7월, 2007년 8월~2008년 1월 기간에 대한 베트남산 의류 수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두 차례 모두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에는 덤핑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힘.

- 그러나 예정대로 해당 의류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이후 6개월 기간에 대한 3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계획

○ 미국의 동 모니터링제로 인해 베트남의 대미 섬유류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베트남산 의류 제품수입은 급증세를 보이며 2007년 의류 수입국 3위에 랭크

- 미국의 대베트남 쿼터가 폐지되기 전인 2006년에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 규모는 32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성장세에 그쳤으나, 2007년에는 44억 달러, 전년대비 35% 증가

- 2008년 1/4분기 현재,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율로 미국의 의류 수입국 2위에 올라섬.

〈미국의 베트남산 의류 수입 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3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724.7	6.3%	3,222.1	18.3%	4,358.5	35.3%	1,158.2	30.8%

자료원 : 미 상무부 섬유국

○ 이 같은 미국의 수입 모니터링 중에도 수입 지속 증가, 시장점유율 상승 현상으로 인해, 미국이 아직까지 덤핑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함에도 불구, 감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또한 자의적 반덤핑 조치 가능성 상존

○ 본 모니터링제는 현 정부 임기말까지 실시 예정되어 있어 이후 지속 여부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미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마. 대형바이어 구매패턴

□ 소싱국 변화

○ 중국산 수입환경 변동으로 인해 대중국 소싱여부 재검토

- 중국의 인건비, 원자재 비용 등의 생산단가 상승,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위안화 절상 등으로 중국 소싱의 마진 폭이 크게 감소

- 2009년 대중국 섬유 수입쿼터 해제 후 대중국 수입규제조치 불확실성이 중국 소싱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 바이어들은 대중국 섬유쿼터가 해제되면 업체 수익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규 조치나 연장 없이 대중국 섬유쿼터로부터 완전 자유화 되더라도 2005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중국산 섬유류 수입 폭증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 균형 있는 수입국 다변화 모색

- 변수가 많은 중국 소싱 대신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으로 수입선 전환 모색.

- Wal-Mart, Macy's, JC Penny 등에 납품하고 있는 Phillips-Van Heusen Corporation과 Jockey International 등 일부 바이어들은 이미 소싱 다변화 전략을 실행으로 옮겨 베트남 등으로 소싱의 상당 부분 이동

□ 구매 기준

○ 비용 절감 노력, 가격조건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

- 현 미국의 경기 위축은 경기에 민감한 섬유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올 상반기 대형의류업체 매출액이 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분투, 가격조건이 더욱 중요한 구매기준이 됨.

○ 소량의 잦은 오더, 짧은 리드타임 수용

- 미 시장 내 저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의류의 인기로 의류업체들은 시즌당 3~4차례 신제품 출시하고 있음. 시즌 중 유행이 바뀌는 초단기 패션 트렌드가 정착됨에 따라, 과거 전형적인 오더 관행 대신 수시 주문 체제로 전환 중.

- 바이어들은 리드타임이 짧은 신속한 딜리버리를 요구하고 있고 수시 소량의 오더를 자주 발주하는 추세

- 아울러, 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고율 집중 관리 차원에서 재고율 최소화 노력 중으로 시장상황에 맞춰 오더를 내므로 오더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음.

○ 긴밀한 협조관계, 전공정(Full Package) 제품과 서비스 선호

- 바이어들은 봉제공장이 샘플 제작, 시제품 생산은 물론 원단 및 부자재 소싱 등과 같은 생산 전(前) 필요한 각종 활동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쿼터가 있을 때는 수입을 국가단위로 조정해서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쿼터가 철폐되고 난 후에는 국가에 상관없이 가장 능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면 어느 국가에 소재하든지 관계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2. EU시장

가. 수입시장 개황

□ EU의 섬유 의류 수입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2007년 수입은 681억유로로 2005년 대비 29% 증가함

- 의류 수입이 578억유로로 총 수입의 85%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분야에서는 합성필라멘트직물과 합성스테이플직물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음

〈EU의 최근 3년간의 섬유·의류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유로, %)

HS	품목명	2005	2006	2007	'07 점유율
54	Manmade Filament,Fabric	2,498	2,576	2,791	4%
55	Manmade Staple Fibers	2,154	2,402	2,482	4%
56	Wadding,Felt,Twine,Rope	849	969	1,028	2%
57	Textile Floor Coverings	1,193	1,272	1,329	2%
58	Spcl Woven Fabric,Etc	827	835	728	1%
59	Impregnatd Text Fabrics	812	903	948	1%
60	Knit,Crocheted Fabrics	678	775	915	1%
61	Knit Apparel	23,013	26,143	27,553	40%
62	Woven Apparel	26,292	29,339	30,386	45%
	합 계	52,815	59,267	68,161	100%

주 : HS 54~62류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입대상국

○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으로 총 섬유·의류 수입의 3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터키(16%), 인도(7%)의 순임.

- 중국은 여전히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수입금액은 3년간 29%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변동없이 35%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07년 섬유의류 수입은 11억 7,200만 유로로 2005년 이후 3년간 66% 라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수입시장 점유율도 1.3%에서 2%로 증가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억 9,800만 유로로 3년간 5% 감소하였으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

〈EU27의 주요 수입국별 섬유·의류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유로, %)

HS	2005	2006	2007	‘07년 비중	‘05년 비중
파키스탄	1,122	1,242	1,220	2%	2%
인도네시아	1,456	1,694	1,529	2%	3%
태국	943	1,037	964	1%	2%
대만	642	687	557	1%	1%
인도	3,993	4,642	4,769	7%	8%
한국	1,053	1,037	998	1%	2%
터키	9,595	9,982	10,800	16%	18%
스위스	1,174	1,212	1,305	2%	2%
일본	507	531	552	1%	1%
미국	1,101	1,223	1,172	2%	2%
중국	18,584	20,762	24,019	35%	35%
베트남	704	1,053	1,172	2%	1%
총수입	52,815	59,267	68,161	100%	100%

주 : HS 54~62류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나. 품목별 수입동향

□ 의류 수입시장 동향

○ 지난 3년간 EU 27의 의류 역외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07년 EU 27개국의 의류(HS 61 및 62류) 총 역외수입은 578억 유로 규모로, 2006년의 12.5% 증가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5~07년의 3년 동안의 증가율은 총 17% 수준임.

○ 주요 역외 수입국은 중국으로 2007년 기준 총 역외수입의 약 38%을 차지했으며 이어 터키·방글라데시·인도 등의 순이지만, 중국과 터키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억6000만 유로로 총 역외수입의 0.45%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30% 정도 줄었음.

○ 2007년 중 수입 대상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 증가, 터키・모로코・튀니지로부터의 수입은 반등했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 특히 남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줄거나 정체상태임.

- 3위 수입국인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2006년 17.5% 증가한 이후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4위국인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수입은 5.11% 감소해 43억7000만 유로의 수입에 그침. 방글라데시산 수입은 특히 편직의류 수입이 크게 감소(-11.5%)하였고, 8위인 인도네시아 역시 15% 감소했음.

- 반면 지중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반등

〈EU의 의류 수입 추이〉

순위	구분	2007년 수입		수입시장 점유율(%)	
		수입액(백만유로)	증감률	2005년	2007년
	역외수입	57,830	4.52	100.00	100.00
1	중국	21,808	15.75	34.42	37.71
2	터키	8,857	8.38	16.36	15.32
3	방글라데시	4,373	-5.11	7.19	7.56
4	인도	3,835	0.77	6.58	6.63
5	튀니지	2,565	4.06	5.01	4.44
6	모로코	2,516	6.30	4.60	4.35
7	홍콩	1,677	-33.15	3.47	2.90
8	인도네시아	1,194	-15.32	2.44	2.07
9	베트남	1,110	8.77	1.40	1.92
10	스리랑카	1,039	7.61	1.62	1.80
24	한국	259	-29.75	0.65	0.45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원 : 유럽 통계청

○ 2005년 쿼터폐지의 혜택은 중국과 인도산이 향유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쿼터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4년과 비교할 때 89% 증가했고, 인도 역시 55% 증가했음.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중 18% 증가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산이 니트의류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미미한 증가로 평가됨.

- 한편 베트남산 수입도 76%라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한국산은 같은 기간 중 57% 이상 감소해 수입시장 점유율도 2004년의 1.35%에서 0.45%로 크게 줄었음.

○ 단가 상승세는 유로화 강세 때문에 중단되는 경향

- 수입 단가는 2005년에 떨어진 후 2006년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됐으나, 2007년에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수입단가가 가장 낮은 그룹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로 최저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가 중간 가격대에서, 모로코와 튀니지·터키는 고급품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의 단가상승 추세

- 2005년 섬유수입쿼터의 전면 해제 이후 이 같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남성용 바지 제품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07년의 단가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평균적으로 중국제품은 타국 제품에 비해 10~20%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

〈EU 시장에서의 중국산 의류제품 단가 추이〉

HS코드	품목	단가(Euro/kg)		단가 증감률 (%)	
		2004	2007	2006	2007
6101	남성코트	12.18	9.63	14.3	-6.1
6102	여성코트	15.47	11.28	8.8	-4.6
6103	남성정장/바지	5.14	4.76	-10.2	-14.2
6104	여성정장/바지	5.39	6.60	-14.5	-0.1
6105	남성셔츠	12.86	14.83	246.9	3.4
6106	여성 블라우스	13.92	19.70	27.5	15.5
6107	남성 팬티	8.20	7.27	-4.6	-2.0
6108	여성 속옷	9.92	8.69	3.1	-5.7
6109	티셔츠	11.71	13.74	62.2	-6.4
6110	풀오버	16.47	19.98	37.3	8.9
6111	유아복	11.15	11.80	3.5	-0.06
6112	스포츠의류	8.54	9.48	13.4	-6.5

6114	특수의류	21.70	11.27	-19.1	-7.2
6115	타이즈	3.71	5.67	4.0	1.8
6116	장갑	6.30	5.41	-2.5	-12.6
6117	모조장신구	7.28	9.65	0.1	12.6
6201	남성코트	8.80	10.09	4.2	5.0
6202	여성코트	9.93	10.95	1.5	2.9
6203	남성정장/바지	8.90	11.25	22.9	-0.6
6204	여성정장/바지	12.59	13.75	21.0	-4.6
6205	남성셔츠	10.13	10.22	-4.0	0.3
6206	여성 블라우스	15.73	24.48	8.0	9.7
6207	남성 속옷	8.72	7.27	0.9	-4.0
6208	여성 속옷	7.40	7.04	-3.9	-8.6
6209	유아복	12.24	13.37	6.8	-4.9
6210	모피의류	13.10	9.92	-5.6	-6.5
6211	스포츠의류	9.17	8.51	0.2	-2.1
6212	브래지어	19.85	24.86	30.7	-3.7
6213	손수건	7.0	7.31	-1.4	3.8
6216	장갑	4.25	8.65	7.4	-11.5
6217	모조장신구	5.64	9.01	4.7	3.5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 유럽통계청

□ 직물 수입시장 동향

※ 섬유분야의 주종 수입품목(07년 수입액 102억 유로로 섬유 역외수입의 52% 차지)이자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군인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직물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화이버를 대상으로 분석함

※ 통계 분석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직물의 경우 HS 540752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화이버의 경우 HS 530320을 대상으로 함

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 지난 4년간(2004~2007) EU의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dyed polyester filament fabrics) 역외수입은 금액기준 53.8%, 물량 기준 49% 감소

- 역외 수입국인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의 대달러화 강세

○ 2007년 한 해 동안의 EU27의 역외수입은 1억 3,478만 유로(1억 8,397만 스퀘어미터)로, 최대 수입국은 금액기준으로 터키,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순임

- 중국 : 현재 EU로부터 최대 7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대중수입은 지난 4년간 물량 기준으로 무려 약 70%의 감소를 보였고 금액기준으로도 84% 감소.
  · 폴리에스테르직물에 대한 EU의 2008년 수입관세율은 8%로, 74%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가 대중수입 감소 직접 유발

- TOP 20 수입대상국중 중국 이외에도 한국, 일본,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액과 물량 모든 측면에서 줄었음.

- 한국은 EU의 4위 역외수입 대상국으로, 작년 한해동안 1,243만유로가 수입되어 금액기준 48%, 물량기준 16.7% 감소하여 중국과 함께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터키와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증가

○ 터키, 인도의 성공 요인

- 터키의 시장 유지 비결은 고품질로서 터키산 직물의 평균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1.64 유로로, 중국산 가격 0.33 유로를 감안하면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

- 인도 역시 고급화 전략이 성공비결로, 2007년 수입 물량면에서는 수입시장 점유율 4.7%로 미미한 수준이고 지난 4년간의 수입물량도 오히려 줄었으나 (3.7% 감소), 수입금액면에서는 무려 41% 늘어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 인도산 직물의 단가는 2004년의 0.93 유로에서 2007년에는 1.35 유로로 더 높아졌으며, 2007년 한해에만 단가가 28% 인상되면서 점차 터키의 자리를 압박하고 있음

〈EU 27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의 역외수입 추이〉

(단위 : 천유로, 천Square Meters, euro/square meters)

	수입물량			수입금액			단위가격	
	2004	2007	증감율	2004	2007	증감율	2004	2007
역외수입	362,348	183,973	-49.2%	294,130	135,785	-53.8%	0.81	0.74
터키	12,630	14,487	14.7%	23,414	23,795	1.6%	1.85	1.64
중국	237,318	71,949	-69.7%	150,820	23,726	-84.3%	0.64	0.33
대만	24,911	28,088	12.8%	23,607	19,974	-15.4%	0.95	0.71
한국	19,826	16,506	-16.7%	23,847	12,432	-47.9%	1.2	0.75
일본	7,893	4,790	-39.3%	23,706	11,924	-49.7%	3	2.49
인도	8,907	8,579	-3.7%	8,250	11,617	40.8%	0.93	1.35
인도네시아	11,982	14,993	25.1%	8,079	7,226	-10.6%	0.67	0.48
말레이시아	6,044	9,014	49.1%	2,853	6,654	133.2%	0.47	0.74
태국	18,276	5,221	-71.4%	12,395	4,332	-65.1%	0.68	0.83
스위스	554	694	25.3%	2,980	3,233	8.5%	5.38	4.66

주 : 1. 조사대상 폴리에스테르직물 - HS 540752000,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r More of Polyester Textured Yarns by Weight
2. 증감율 : 2004-2007년간 증감율

자료원 : Emerging textile, Eurostart

○ 가격대별 경쟁국 현황

- 고급품 시장에서는 일본산이 스퀘어미터 당 2.49 유로, 스위스가 4.66 유로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저가 분야에서는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이 0.71~0.83유로 내외에서 경쟁

- 한국산은 지난 4년간 단가가 1.2유로에서 0.75 유로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EU 회원국중 최대 시장은 독일로, 2007년 수입규모 3,064만유로로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영국(2,583만유로), 이태리(1,744만유로), 스페인(1,225만유로), 벨지움(905만유로)의 순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지난 4년간 폴리에스테르직물 수입이 줄었으나 스웨덴(금액기준 62% 증가), 오스트리아(144%), 라트비아(548%) 등에서는 물량과 금액 모두 크게 늘었음

- 2007년중에는 특히 최대 수입시장인 독일에서 바이어들이 거래선을 중국으로 대폭 전환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독일의 수입단가 역시 크게 낮아져, 2004년 1.26 유로에서 2007년에는 0.5유로로 크게 떨어졌음.

②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화이버

○ 2005~2007년간 EU27의 폴리에스테스 스테이플 화이버 수입은 금액기준 9%, 물량기준 8%의 완만한 증가에 머물렀음

- 2007년 역외수입은 4억 7,300만유로로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한국, 대만, 터키, 인도, 베트남임

- 최대 수입대상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억 6,400만유로로 전년 대비 36% 증가해 수입시장 점유율이 35%에 달했으며 2위 수입대상국인 대만산 점유율은 16%로 하락

- 대만산 수입 급감은 2007년에 취해진 대만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가 2007년 중반 폐지되면서 다시 대대만 수입이 늘고 있음.

○ 인도와 베트남이 대만산 반덤핑 조치에 대한 반사이익 향유

- 4위 수입대상국이었던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2007년 중 크게 늘어 2007년 2,800억유로로 무려 6천%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시장 점유율도 6.1%로 크게 증가

- 5위국인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급증

○ 3위 수입대상국인 터키산 직물은 정체상태를 보여 3년 내내 수입시장 점유율 11%를 유지

○ 수입단가는 국별로 다소간의 가격 부침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1.15유로/kg을 유지

〈EU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화이버 수입 추이〉

	수입금액(백만유로)			07년점유율	증감율 (07/05)	단가(유로/kg)	
	2005	2006	2007			2005	2007
EUR 27	435,246	442,687	473,260	100.00%	9%	1.15	1.15
S. Korea	120,929	120,841	164,309	34.72%	36%	1.12	1.18
Taiwan	133,346	181,214	77,670	16.41%	-42%	1.17	1.2
Turkey	47,941	56,654	52,600	11.11%	10%	1.19	1.2
India	466	840	28,990	6.13%	6121%	1.3	1.04
Vietnam	748	8,878	28,890	6.10%	3762%	0.87	0.94
U.S.A.	22,828	12,533	24,235	5.12%	6%	1.37	1.27
Indonesia	210	631	21,625	4.57%	10198%	0.87	0.98
Thailand	55	304	20,691	4.37%	37520%	1.14	1.1
Japan	14,862	13,977	17,207	3.64%	16%	1.53	1.7
China	36,928	2,409	14,730	3.11%	-60%	0.97	1.11
Nigeria	13,275	7,956	8,578	1.81%	-35%	1.22	1.13
Malaysia	17,373	24,960	3,514	0.74%	-80%	1.05	1.06
Pakistan	3,847	1,239	2,193	0.46%	-43%	1.11	1.07
Philippines	925	1,391	2,138	0.45%	131%	0.95	0.91
Iran	4,547	4,625	1,720	0.36%	-62%	1.06	1.03

자료원 : EUROSTAT

○ 최대 수입국은 독일로 2007년 역외수입의 24%(1,120억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이태리(18%), 영국(16.5%) 등의 순임

다. 소비전망과 유통업체 동향

○ 유럽의 섬유 및 의류 소비 증가 둔화 전망

- 여러 유형의 판매채널(아울렛, e-commerce 등)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 소매가격 인하 추세

- Fast-fashion 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의류 구매시 참신성을 많이 고려(즉, 브랜드의 영향력 줄어듦)

- 양극화 현상 심화. 즉, 한편으로는 하이퍼마켓에서의 수요가 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점, 고급 부티크 수요 역시 증가세임

○ 의류 유통업체의 통합이 심화될 전망이며 중저가 분야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수요 정체 및 둔화가 가격 경쟁의 직접적 요인

-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가격 경쟁이 여타국에 비해 치열하지 않으나 대신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소매유통업체의 신규 진출 여지가 많지 않음

○ 식료품 전문 대형 유통체인의 의류시장 진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부상되고 있음

-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L) 확산

- 가격경쟁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부 유통업체는 자사의 특징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
  예) ZARA의 품질 적극 부각 전략, H&M사의 고급 디자이너와의 제휴를 통한 디자인 부각 전략 등

○ 대형 유통체인의 경우 생산에서 포장, 물류까지 담당하는 Full-supply chain을 선호

- 유통체인은 디자인, 마케팅 등에 주력하고 나머지는 공급업체가 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전략

라. EU의 주요 섬유산업 정책

○ GSP+ 제도, 지중해국가와의 FTA 등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최빈국 및 지중해국가산 섬유의류 수입에 혜택 부여

① GSP+ 제도

- GSP 제도는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특혜제도로 이중 최빈국에 대해 EU는 소위 “GSP+"라는 이름하에 최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전 품목에 대해 무세 적용

- 현 GSP+ 제도는 2006.1~2008.12월말까지 적용되며, 갱신시 인권이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철회할 수 있음

○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GSP+ 제도와 관련, 여러 최빈국들이 제도 연장 요청 중

② EU-지중해 자유무역협정 추진

○ 바르셀로나 선언

- 1995년 체결된 바르셀로나 선언에 따라 지중해국가산 제품은 현재 EU에 무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대신 이들 국가는 12년내 EU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합의

○ 지중해국가산 누적원산지규정 인정

- 2003년 '범 EuroMed 누적원산지규정' 채택하기로 합의하여 2005년부터 실시함으로써 지중해국가산 제품의 대EU 수출이 더욱 용이

- 대상국 : EU 회원국, EEA 회원국, 알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튜니시아, 가자지구, Faroe islands, 터키

○ Euro-지중해연안국 FTA 추진

- 2005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ro-지중해연안국 회의에서 2010년까지 Euro-지중해연안국 FTA을 추진하기로 합의

③ 유럽의회의 EU 면직물 산업 보호 조치 촉구(08.5.9)

○ 유럽의회는 EU 집행위가 제출한 보조금 제도 수정안에 대해 면 및 면직물 산업 보호를 위한 국별 차원의 지원제도(National support programmes)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

- 그러나 동 결의안은 집행위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II. 중국 섬유생산 동향

1. 수출동향

□ 섬유류(HS code 50~63) 수출, 전반적인 둔화세

○ 2008년 1~4월까지 섬유류 수출액은 502.8억 달러로 1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6년, 2007년 증가율 28.2%, 20.1%에 비해 둔화된 것임.

〈중국의 섬유류(HS 50~63)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HS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7,689	21.3	138,078	28.2	165,856	20.1	50,285	17.3
50	견, 견사, 견직물	1,336	25.8	1,423	6.5	1,397	-1.9	444	14.3
51	양모, 수모	1,846	7.6	1,998	8.3	2,126	6.4	716	8.9
52	면, 면사, 면직물	7,441	12.7	8.874	19.3	9,356	5.4	3,397	20.0
53	마류의사와 직물	618	11.5	660	6.8	616	-6.7	208	-0.9
54	인조필라멘트	5,894	14.2	6,595	11.9	7,796	18.2	2,716	25.6
55	인조스테이플	4,390	23.6	5,530	26.0	6,366	15.1	2,211	21.8
56	워딩,부직포	860	44.7	1,101	28.0	1,374	24.8	560	47.0
57	양탄자	933	20.6	1,070	14.7	1,317	23.1	450	30.2
58	특수직물 등	2,709	36.8	3,365	24.2	4,691	39.4	1,663	44.4
59	침투, 도포한 직물	1,755	41.8	2,132	21.5	2,842	33.3	1,175	54.3
60	편물	3,652	21.9	4,641	27.1	5,735	23.6	1,948	22.7
61	의류(편물제)	30,876	19.7	44,903	45.4	61,342	36.6	15,109	15.5
62	의류(편물제 이외)	35,038	20.9	43,710	24.8	47,339	8.3	14,638	8.5
63	기타 섬유제품	10,340	32.8	12,076	16.8	13,560	12.3	5,050	26.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중국의 의류수출은 2008년 들어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주문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임.

○ '08년 1분기 중국의 대미 의류수출은 2.05% 증가하여 전년 동기 15.26% 증가한 것과 대비

○ 위안화 절상,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중국 내부의 문제도 중첩

- 미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절상은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오더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 수출에 따른 수익률도 감소

○ 중국의 신노동법 적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은 물가상승으로 중국 섬유산업 내 인건비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섬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산원가가 10% 이상 상승하여 수출경쟁력 저하

○ 그동안 수출비중이 높았던 중국의 의류산업이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수출물량이 감소한 것도 원인

- 2008.1.1일 대중국 섬유수입규제를 해제한 EU시장으로 수출물량이 늘면서 대미 수출비중 감소 → 수출대상국 다변화로 이어질 전망

-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것도 큰 원인
  * '07년 위안화는 미 달러화 대비 6.47% 절상, 유로화 대비 4.18% 절하

○ 최대시장인 미국 경기침체와 EU의 대중국 수입규제 해제가 맞물려 수출물량이 상당부분 유럽으로 전환 중

□ 중국의 섬유류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내수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08년 1분기 중국 내 의류판매는 28.6% 증가

- 의류제품 소비자 가격도 29% 증가

○ 중국의 섬유류 수출비중 하락 : 33.9%('03) → 24.9%('07)

- 중국의 섬유류 수출은 향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중국 섬유산업의 수출 둔화 원인

① 미국의 경기침체

- ‘08년 1분기 미국의 의류수입은 5% 감소하였고, 3월 중에는 11.5%나 감소

- 같은 기간 대중 의류수입 역시 10% 감소

② 위안화 절상

- ‘05.7월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 대비 17% 절상되었음.

- ‘08년 1~4월 중에도 4.2% 절상

③ 중국 내 생산비 증가

-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 물가상승 및 신노동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중국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은행대출 규제 및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중국 섬유산업 환경변화 (코스트 상승요인)〉

구 분	내 용
위안화 절상	‘05년 5월부터 ’07년 7월에 걸쳐 미 달러대비 17% 절상
인건비	매년 10~15% 상승
인력부족	기숙사 정비, 사원여행 등 복리후생비 증가
신노동계약법	퇴직시 근속 1년당 1개월의 경제보상금(퇴직금) 지불의무 (약 8.3% 코스트 상승)
	조합비(급여의 2%) 지불
	사회보험비 지불(기업부담은 급여의 10~40% 정도)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의류제품에 대해 13%에서 11%로 인하
가공무역제도	원료수입 시 관세, 증치세 상당액의 보증금 납부 (대상지역은 동부 연안지역이며, 의류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환경규제 강화	환경규제 대책비용, 염료가격 상승 등
원자재가격 상승	보일러용 경유 가격 3배 상승 등

자료원 : 일본화학섬유협회

2.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 경영환경 및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섬유산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음.

○ '07년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섬유업계의 평균 이윤은 2%에서 0.6%로 하락

- 내부적으로 임금상승 등 코스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외부적으로는 미국 등 주력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주문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세계 섬유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하던 중국에 베트남 등의 도전이 거세어져 경쟁이 심화되어 중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추세는 많은 섬유 생산업체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며, 이 같은 추세는 중국 내 생산비 상승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섬유산업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수출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진행 중

○ 섬유 생산지역이 기존 동부 연안지역에서 서부 지방으로 이전

-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 철도시설 개선 등으로 물류비용 감소 전망

○ 원가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고급제품 위주 전략

- 저가품 시장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온두라스 등이 경쟁 우위

○ 수출산업의 내수전환

- 소득증가에 따라 중국 내수 소비시장 급성장

- 중국 내 의류 제조업체들이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는 수출시장 위주의 전략에서 다양한 소비계층이 확산되는 국내 소비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
  ※ 중국 내 가계소비에서 도시주민 1인당 의류소비는 ‘00년 연간 500.5위안에서 ’06년 910.8위안으로 1.8배 증가(일본화학섬유협회 조사. ‘08.4월)

□ 중국 섬유기업들의 대응 움직임

○ 기술혁신 노력

- 국내외 대학교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인재 발굴 및 배양에 힘쓰며, 국제적 추세에 긴밀히 대응하고, 신소재 및 신기술을 개발 및 응용하는 데 전력을 다하며, 상품의 디자인과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브랜드전략 강화

- “江蘇蘇膏(강소성 소고)”기업은“OEM 방식”에서“브랜드수출”로의 전환을 통해 회사의 핵심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음.

○ 내수시장 개척

- 중국 내수시장에서 의류, 특히 최고급 의류제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섬유 원료에 대한 수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개척을 통해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이윤감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국정부의 섬유산업 지원정책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내수증가에 따라 중국 섬유산업의 해외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섬유 수출진흥시책이 축소되고 있음.
  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 13% → 11% (‘07년부터)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서 나타난 중국 섬유산업의 전략은 “섬유대국”에서 “섬유강국”으로 변모를 모색하는 것으로 요약됨.

- 부가가치화, 기술지향, 환경요소 고려 등을 통해 독자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성장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함.

- 아울러 노동집약적 부분은 기존 동부연안 지역에서 중서부로 이전하여 전체적으로 산업의 고도화 추구 노력

○ '08년 초 섬유산업 특별지원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

○ 對EU 수출허가증 제도 실시 (2008.1.1~12.31)

- 대상품목 : 일반무역, 구상무역, 가공무역, 보상무역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출되는 8개 품목
  · 티셔츠(4류), 풀오버(5류), 바지(6류), 여성 블라우스(7류), 드레스(26류), 브래지어(31류), 베드린넨(20류), 아마사(115류) 등 8개 품목
  ※ 단, 중국에서 가공되었으나, 중국 원산지가 아닌 제품은 적용 제외

- 발부방법 :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허가증 교부

3. 중국 내 업계 동향

가. 중국 업계 동향

□ '중국 면방직기업 경제조사 분석보고' (중국 면방직협회(綿紡織協會), 2008년 상반기 조사)

○ 대내외 환경악화에 따라 응답자의 49.2%가 다른 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함.

-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성에 소재한 면방직협회 이사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위안화 절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무역 마찰 등 외부환경으로 인해 기업경영인들은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추세이며, 당초 계획된 것보다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오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각 분야의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방직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27.3%가 현재의 위안화 환율을 견디기 어렵다고 했으며, 44.4%가 수출에서 일부 내수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부는 완전 내수로 전환했다고 함. 따라서 내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저가 제품의 잉여생산 능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함.

○ 중국 방직품 수출입상회(中國紡織品進出口商會)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섬유산업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

- 조사에 따르면, 중국 섬유산업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함.

- 올해는 섬유업계에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임금상승, 환율변화,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계약체결 시 확보한 약간의 이윤도 몇 개월 후 제품 공급시에는 손해로 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함.

- 기업들은 기술수준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연구개발 투자로 중저가품 생산을 줄여 품질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음.

○ 베트남, 인도 등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과의 경쟁으로 일부 수출기업의 경우 저가의 오더를 접수하고 있으나, 결국 그 가격에 맞춰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서부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함.

나. 대중 진출 우리 섬유업계의 대응 현황

□ 미국, 한국 등 대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청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석에 진출한 한국 A기업의 경우 여성용 스웨터, 니트 생산 업체로 최근 지속되는 임금 상승 및 환차손 등의 이유로 청산하고 철수

□ 홈쇼핑, 백화점, 직영매장 등 유통망을 통한 내수시장 개척

○ 5년 전 상해에 진출한 한국 B기업의 경우 한국 모기업에 대한 봉제가공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는데, 3년 전부터 홈쇼핑, 백화점, 직영매장 등 유통망을 통해 중국 내수에 성공적으로 안착함

- 현재 동사는 중국내 월매출액이 200만 위앤에 달하고 있으며, 모기업 수출에 대한 환차손 부분을 중국 내수로 만회하고 있는 상황임

□ 브랜드 업체 직접 생산을 통한 비용절감

○ 브랜드 업체인 상해 C기업의 경우 그동안 프로모션을 통한 완제품 조달방식을 취해왔으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절강성 의류업체를 인수할 계획으로 전해짐.

III. 신흥 섬유수출국 동향

□ 원자재가격 상승, 신흥시장의 성장 등으로 아시아 섬유수출 구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

○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저임금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임.

- 미국 의류수입 시장의 경우, 대중국 수입이 둔화세를 보이는 반면, 베트남의 시장점유율은 상승 중

- 특히 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경쟁 중

□ 아시아 섬유수출국들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압박임.

○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서는 최근 쌀 가격 상승에 따라 섬유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1년사이 식량가격 50% 상승

- 저임금국가의 경우, 월 생활비 중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70%에 이르기 때문에 식량가격은 임금과 직결

○ 물가인상,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수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21.4%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한 나이키제품 생산업체는 임금을 10% 가량 올려준 것으로 알려짐.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등도 작년 한해동안 5~9%의 물가상승을 경험하며, 수출가격 인상 중

1. 베트남

가. 수출 환경 및 현황

□ 베트남 WTO 신규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 베트남의 WTO 신규가입에 따른 최대 수혜산업

- WTO 섬유쿼터 적용 후 수출이 확대되는 등 빠른 성장세

○ Post China 대체지로서의 투자매력 및 대형바이어 수주변경 추세

- 최근 Post China에 대한 대체지로 각광받으면서 전세계 섬유의류 기업의 현지 투자확대 및 생산기지 이전이 크게 증가

- 중국 인건비 및 생산비 상승에 따라 구미 바이어들이 베트남으로 수입 대상지를 대체하려는 추세가 시작

○ 봉제관련 기술력 축적 및 저렴한 숙련노동력 풍부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으로 90년초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20%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기업 투자확대 추세

□ 수출현황

○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수출은 2000년 7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어 매년 2~30%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베트남 경제의 최대 외화수입 산업으로 부상함.

○ 2007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32.8% 증가한 77.5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함.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액(US$백만)	2,732.0	3,609.1	4,385.6	4,838.4	5,834.4	7,750
전년대비 증가율(%)	38.3	32.1	21.5	10.4	26.7	32.8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 주요 수출국별 수출현황

○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은 미국, EU, 일본이 주요 대상국이며 미국은 베미 교역협정이 발효된 2002년 20배 가까운 수출증가세를 보이며 부동의 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EU 또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함.

-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 최대 수출대상국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매년 수출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임.

〈베트남의 주요국별 섬유 및 의류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975.8 (1,954.3)	1,973.6 (102.3)	2,474.4 (25.4)	2,602.9 (5.2)	3,044.6 (17.0)	4,465 (46.6)
EU	546.0 (-9.5)	550.0 (0.7)	752.5 (36.8)	907.3 (20.6)	1,243 (37.0)	1,489 (19.7)
일본	490.0 (-17.2)	478.2 (-2.4)	531.1 (11.0)	603.9 (13.7)	627 (3.8)	703 (12.1)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10대 주요 수출국 수출현황 및 추이〉

(단위 : 백만불, %)

수출국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년비	비중	수출액	전년비	비중
USA	2,602	44.61	3,044	16.97	52.18	4,465	46.65	57.39
EU	1,064	18.23	1,244	37.46	21.32	1,489	19.74	19.14
일본	537	9.20	628	3.93	10.76	703	12.14	9.05
대만	155	2.66	181	-0.95	3.11	161	-11.18	2.07
캐나다	83	1.43	97	20.23	1.67	135	39.25	1.74
한국	71	1.21	83	67.55	1.42	85	2.49	1.09
러시아	535	0.91	626	30.33	1.07	79	26.59	1.02
멕시코	-	-	-	-	-	55	-	0.7
중국	26	0.44	30	265.92	0.51	43	45.17	0.55
터키	5	0.09	6	134.99	0.1	38	563.8	0.49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06년			2007년		
	수출액	전년비	비중	수출액	전년비	비중
T - Shirt	945	24.55	16.21	1,536	62.41	19.74
Trousers	1,064	27.1	18.24	1,351	27	17.37
Jacket	870	17.18	14.92	1,120	282.76	14.4
Shirt	417	5.09	7.15	465	11.52	5.98
Overcoat	290	30.26	4.96	368	27.2	4.73
Short	241	49.79	4.13	354	47.3	4.56
Skirt	197	35.09	3.38	321	63	4.13
Fabric	205	65.05	3.52	297	44.91	3.82
Others	339	80.44	5.81	294	-13.1	3.78
Kid clothes	132	19.89	2.26	260	97.16	3.34
Underclothers	172	6.95	2.95	204	18.57	2.62
Vest	111	22.68	1.91	125	11.91	1.6
Others	76	-56.24	1.29	123	63.42	1.59
Sports Trousers	70	44.31	1.2	103	46.95	1.33
Other Textile	5	-95.83	0.08	92	1808.32	1.18
Kimono	92	-1.33	1.58	92	-0.91	1.18
Moquisto-net	83	233.89	1.42	83	0.39	1.07
Sweater	63	7.98	1.09	76	20.2	0.98
Sleep wear	41	25.97	0.07	69	70.56	0.89
Gloves	29	70.49	0.5	60	107.17	0.77
Cotton Towel	71	47.78	1.22	59	-16.69	0.76
Labour safety clothes	37	91.11	0.64	41	10.49	0.53
Swimwear	31	0.19	0.53	41	32.54	0.53
Towel	12	-56.85	0.21	34	171.59	0.43
Jeans	11	-16.23	0.19	31	175.56	0.4
Waistcoat	29	70.52	0.49	30	5.24	0.39
Woolen Clothes	17	-68.29	0.28	26	57.9	0.34
Fur towel	24	-3.61	0.42	24	-0.48	0.31
Socks	8	16.34	0.13	15	97.98	0.19
Hospital clothes				13		0.17
Garment Accessories	7	17.27	0.12	10	49.4	0.13
Jacket	13	11.96	0.21	9	-27	0.12
Wind breaker	11	-9.7	0.2	7	-36.08	0.09
Caravat	7	-13.29	0.13	7	-8.1	0.09
T-shirt clothes	5	-17.79	0.09	6	21.58	0.08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 대미수출 큰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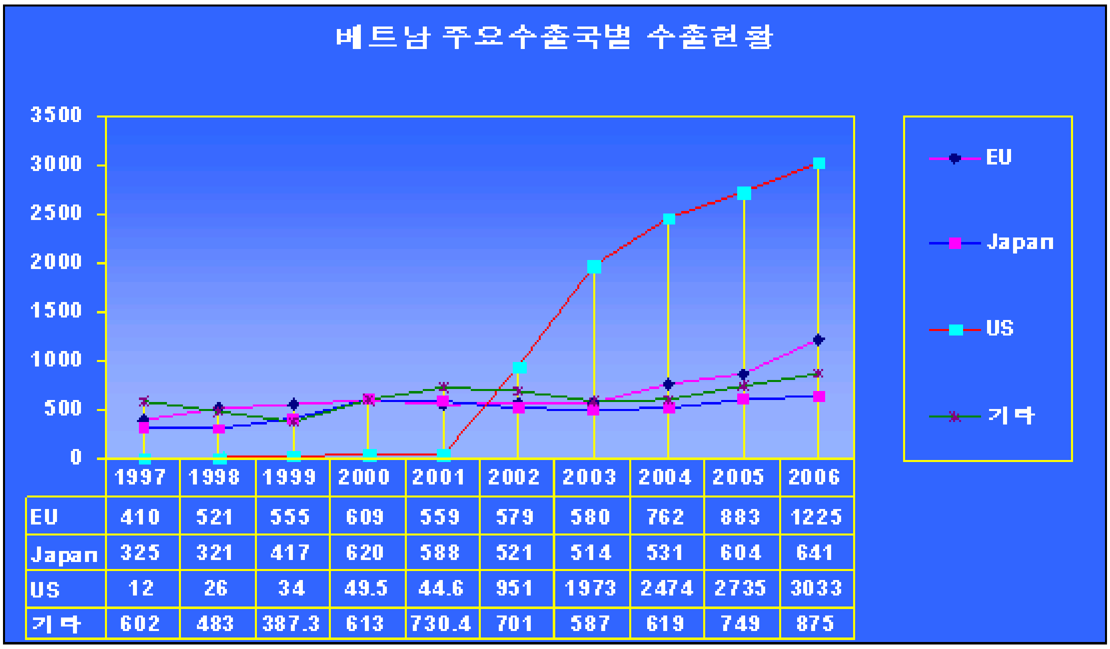
○ 2007년 베트남의 대미수출은 전년동기비 34.1% 증가한 45.6억불을 기록하며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미국의 4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미국시장 주요 수출국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별	2007년	06/07년 증감	05/06년 증감
	전체	96,407	3.35	4.57
1	중국	32,320	19.04	20.81
2	멕시코	5,625	-11.77	-12.01
3	인도	5,104	1.45	8.98
4	베트남	4,558	34.21	17.9
5	인도네시아	4,206	7.81	26.62
6	방글라데시	3,191	6.45	22.02
7	파키스탄	3,170	-2.46	11.91
8	온두라스	2,518	2.96	-6.98
9	캄보디아	2,435	13.24	24.57
10	이탈리아	2,233	8.01	-3.53

자료원: Vinatex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	410	521	555	609	559	579	580	762	883	1225
Japan	325	321	417	620	588	521	514	531	604	641
US	12	26	34	49.5	44.6	951	1973	2474	2735	3033
기타	602	483	387.3	613	730.4	701	587	619	749	875

자료원: Vinatex

□ 높은 섬유 원부자재의 수입의존도

○ 원부자재의 수입비중이 80%이상으로 이 부문의 경제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베트남 원부자재 수입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면	90.4	115.4	111.6	105.4	190.2	167.21	219
방적사	237.3	228.4	272.6	317.5	338.8	339.59	544.6
직물	761.3	880.2	1,523.10	1,805.40	1,926.7	2,398.9	2,984
부자재	1,194.7	1,397.9	1,513.4	1,825.9	1,724.3	1,774.2	1,952
전체수입	2,283.7	2,621.9	3,420.7	4,054.2	4,180	4,680	5,696
전체수출	1,891.9	1,975.4	2,732	3,609.1	4,385.6	4,838.4	5,834

자료원: Vinatex

나.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개요

□ 베트남 기간 및 핵심 수출산업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전체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산업 포함시 10%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고용면에서 전체 고용의 5%에 해당하는 2백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 섬유ㆍ산업의 GDP 비중 : '01년(2.1%)→ '03년(4%)→'06년(8%)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원유를 제외한 제 1의 수출산업으로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며 세계 10대 섬유 수출강국으로 부상

□ 관련 기업현황

○ 2007년 기준, 베트남의 섬유의류관련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무역업체를 포함하여 총 2,390개사(2006년 2,230개사)가 영업 중으로 소재 지역별로 살펴보면 섬유의류산업의 메카인 호치민 인근 남부지역에 전체 74%의 기업이 소재하고 하노이 인근 북부가 20.8%, 중부가 5.2%로 각각 소재하고 있음.

- 섬유의류 관련 기업 총 2,390개사 중 최대규모인 베트남 섬유의류공사(Vinatex)를 포함한 국영기업이 0.5%, 외국인투자기업이 25%, 나머지는 민간 및 합작기업으로 추정됨.

〈베트남 섬유의류 관련 기업 현황(2006년 기준)〉

구분	방적사	직물	의류	의류부자재	유통무역	전체
기업수	96	388	1,446	35	265	2,230
비중	4%	17%	65%	2%	12%	100

자료원: Vinatex

〈베트남 섬유의류 제조사 지역별 분포도〉

구분	남부	북부	중부	전체
기업수	1,650	464	116	2,230
비중	74%	20.8%	5.2%	100%

자료원: Vinatex

베트남 섬유의류 공사(Vinatex) 개요

☞ 베트남 최대 섬유의류 기업, 정부가 100% 출자 및 소유한 국영기업임.
- 노동인력 기준 전체 산업의 10%에 해당하나 베트남 전체 면 생산 90%, 방적사 50%, 직물 30%, 의류 17%의 생산비중을 가진 최대기업임.

☞ 2006년 기준, Vinatex사는 전체 산업생산의 32%, 수출의 24%를 차지

□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STAS)에 따르면, 베트남내 섬유의류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총 534건으로 28개국 총 32억불 규모

- 대만이 베트남 최대 섬유의류 투자국으로 총 156개 프로젝트(45개 직물, 93개, 의류, 나머지 의류부자재로 파악) 16.9억불

- 한국은 베트남의 제 2의 투자국으로 총 177개 프로젝트(40개가 직물, 122개 의류, 기타 부자재)에 10억 달러 투자

- 홍콩과 일본이 각 1억불, 독일이 9천만 달러로 파악됨.

○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섬유의류 산업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 증가

- Pamatex Berhad(Malaysia)사가 Chu Lai Open Economic Zone (Quang Nam) 1억 달러 규모의 의류봉제 공장 건설

- 한국의 대원이 Hoa Khanh 산업단지내 8백만 달러 규모의 의류공장 건설

다. 한국-베트남 간 무역투자 관계

□ '07년 양국 간 섬유의류분야 무역 크게 증가

○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섬유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활발한 현지진출과 더불어 대베트남 수출이 25.4% 증가한 10.6억불, 수입은 31.8% 증가한 2.5억불을 기록하며 8.1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08년 1분기 양국간 교역도 30%이상 증가세

〈한-베 섬유분야 무역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Q
수출	814	850	1,066	287
수입	147	192	253	84
수지	667	658	813	203

자료원: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사와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이며 전체 수입의 89%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목은 직물류이며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함.

○ 한국과 베트남의 섬유산업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한국의 고기능성 원사 및 직물 공급과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의류 및 섬유제품 생산에 경쟁력을 보유하여 양국 모두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가능한 Win-Win 협력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베트남은 한국의 전략적 투자 대상지(Post China)

○ 2007년 누적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1위, 135억불)이며 섬유 의류 분야는 베트남내 총 403개 법인이 진출하여 총 9.84억 달러의 해외투자 추진함.

- 최근 China Risk 추세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비중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지로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임.

〈2007년 한국 섬유업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대상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국	방글라데시
해외투자	3,058	984	707	510	388	337
비중	40.4	13.0	9.3	6.7	5.1	4.5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진출 초기 사, 직물 등 섬유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00년부터 봉제의류 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효성의 베트남 스판텍스 생산설비 투자를 포함해 베트남 섬유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1.9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함.

〈한국의 대베트남 섬유분야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1997년	2003년	2005년	2007년	전체
직물	55.3	23.6	36.1	120.0	524.9
의류	4.7	63.6	75.5	66.2	449.5
기타	-	-	4.8	4.8	9.6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라. 베트남 정부의 섬유의류사업 발전 계획

□ 베트남 정부의 최우선 육성 산업

○ 섬유의류 산업은 베트남 경제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기간산업으로 국내소비 충족,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한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2020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 예정임.

〈섬유의류산업 정부 산업정책 목표〉

구분	2008-2010	2011-2020
생산 성장률	16 ~ 18%	12 ~ 14%
수출 성장률	20%	15%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의 총생산액과 100~120억 달러 규모의 섬유의류 수출 목표를 설정함.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자체 원부자재 사용 비율을 50%, 부가가치 50%로 상향 계획이며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릴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전망하며 직물원료 개발(1.8억불), 직물염색공정(22.7억불), 디자인(4.4억불), 국가패션 및 연구센터(2억불)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함.

- 또한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섬유의류 분야 인력 양성사업, 섬유산업을 위한 폐수처리 전용 지역지정, 목화재배지 확대 등의 정부정책 지원을 추진 중임.

〈베트남 정부 섬유의류산업 2020년까지 중장기 목표〉

목표	단위	2006	정부 목표		
			2010	2015	2020
1. 생산액	U$백만	7.800	14.800	22.500	31.000
2. 수출액	U$백만	5.834	12.000	18.000	25.000
3. 노동인력	천(명)	2.150	2.500	2.750	3.000
4. 국산화율	%	32	50	60	70
5. 주요 품목					
- 면사원료	천(톤)	8	20	40	60
- 합성섬유원료	천(톤)	-	120	210	300
- 섬유	천(톤)	265	350	500	650
- 비단	백만m2	575	1.000	1.500	2.000
- 의류	백만(벌)	1.212	1.800	2.850	4.000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마. 업계 현안

□ 미국의 쿼터제 철폐에 따른 변화

○ 금년 초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쿼터제 철폐 이후 성장률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쿼터 철폐 이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은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80%, 인도네시아의 48%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숙련 노동력 부족과 원부자재 공급선을 해외 바이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순 임가공 형태의 계약 방식(CMT 방식)이 많기 때문임.

- 원부자재 공급선 결정권을 베트남 업체가 갖도록 되어 있는 FOB 방식의 계약 비율은 20-30%에 불과.

○ 현재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비해 사업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음.

- 금년중 FOB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현지 기업들의 수가 5~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자들의 섬유 및 의류 부문에 대한 선호도 감소 추세도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 발달에 장애 요인임.

- 호치민시의 경우 섬유 및 의류 부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약 90달러까지 상승하여 원가부담 및 인력구인 애로

□ 베트남 정부의 대미 의류수출 감시체제

○ 최근 베트남 정부는 대미 의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미 의류수출 감시체제(watchdog)를 가동 중임.

- 베트남 정부는 금년 상반기 잠정적으로 대미 섬유의류 수출허가증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6월 22일부터 중단하여 사실상 대미 의류 수출 상황을 신속히 점검하기 어려웠음.

- 지난 2월 베트남 무역부는 현지 섬유 및 의류 업체들에게 대미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선적서류, 베트남 정부발행 서류 등이 미국측으로부터 까다롭게 요구되는 등 통관 요건이 더 까다로와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3월 중순부터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 허가증 발급 프로그램 시행.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 조치가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수출업체들의 신인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국측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결국 수출업체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

□ 미국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 가능성 상존

○ 미국 상무부는 14개 카테고리의 의류 민감품목에 대해 대미 수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자발적 사전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자의적 반덤핑 조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향후 베트남의 대미 섬유수출은 수입쿼터 해제 이후 반덤핑 등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규제조치의 도입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미국 정부는 당분간 베트남산 섬유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의 대미수출 증가에 따라 미국 정부는 베트남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체제를 발동 중이며, 이는 2009년 1월1일부로 종료 예정

○ 미국의 대베트남 반덤핑 조치는 베트남이 시장경제국가 지위[1])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베트남 섬유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시장경제지위에 따라, 베트남의 미국내 수출가격과 비교할 국내가격은 베트남 국내가격이 아니라, 제3국 국내가격으로 결정되므로,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까지는 대베트남 의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도입은 법률상, 절차상의 문제로 유보되고 있으나, 향후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

---

1) 원가, 임금, 환율, 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지위. MES(Market Economy Status)로 인정되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기준으로 덤핑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은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5.11월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음.

2. 인도네시아

가. 수출현황

□ 2007년 인도네시아의 섬유의류 수출은 100억불을 돌파하여,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

〈인도네시아 섬유/의류산업 비중〉

년도	수출액 (억불)	국내 점유율	세계 점유율
2006	94.6	-	-
2007	100.3	22%	1.80%
2008	110	30%	3%
2009	118	-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섬유연합회(API)

○ 인도네시아 섬유연합회(API)는 2008년 섬유제품의 수출규모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수출목표를 118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음.

○ 수출된 제품들의 제품군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수출비중 44%)이며 EU(16%), 일본(5%) 등도 주요 수출국임.

① 대미수출

○ 인도네시아의 대미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연간 42억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의 4.39%를 차지

- 대미수출의 65%는 의류제품

○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니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봉제제품이 주도

- 가격경쟁력,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으로 호평

- 특히 인도네시아 봉제업계를 주도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에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중요시 여기는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제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EU시장으로도 관심을 갖기 시작

- 향후 수출시장이 미국 21%, EU 23~24%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 대두

② 대EU 수출

○ 2007년 대EU 수출은 전년에 비하여 12%가 줄어든 16억 5천만불

○ 그러나 업계는 향후 EU와의 FTA 체결로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될 것으로 전망

③ 대일수출

○ 일본은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산 섬유의류 제품의 최대 소비국이며, 2007년 인도네시아의 대일수출은 5억4천만불로 전년대비 2.1% 증가

- 2007년도 인도네시아의 일본시장 점유율도 2006년의 1.8%에서 2.9%로 증가

○ 일본-아세안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 대일수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섬유산업 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 인도네시아에서 섬유/봉제 산업은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나 성장잠재력 그리고 고용창출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효자산업으로 인정받으며, 새롭게 전략산업으로 재부상

○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라 많은 섬유기업들이 중국 대신 동남아 지역을 투자대상지로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 전개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 현황〉

구분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회사 수 (개사)		2,654	2,661	2,656	2,699	2,704
투자 규모 (십억 루피아)		132,355	132,362	132,381	135,677	137,835
고용 인력 (명)		1,182,870	1,184,079	1,176,183	1,194,326	1,200,842
수출	백만불	7,033	7,647	8,603	9,457	10,063
	천톤	1,773	1,626	1,794	1,879	1,872

자료원 : 인도네시아 섬유연합회(API)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품질 섬유제품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미국, EU,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등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임.

□ 섬유산업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계획

① 섬유기계 교체지원 프로그램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의류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섬유기계 교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

- 기계/장비 구입 할인

- 기계/장비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② 섬유기업 단지 조성 계획

○ 산업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섬유기업 단지 조성

- 이를 위해 기존의 섬유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부 및 동부 자바 지역의 반둥, 스마랑, 빠수루안, 솔로, 수라바야 등의 도시에 섬유단지 조성을 추진 중

다. 업계 동향

□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산업 성장 가능성

○ 최대 섬유 봉제산업 국가인 중국 내에서 저임금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음

-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방글라데시는 노무관리 어려움, 베트남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이전속도가 빨라 향후 섬유, 봉제산업의 인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부상 중

- 비용측면에서는 인니와 베트남을 단순 비교할 경우, 최저임금 및 월 근로시간 등 베트남이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베트남의 임금상승 속도가 높고, 산업 고도화 전략 이행 속도가 빨라서 향후 비용 면에서의 간격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점에서 향후 봉제산업의 중·장기적 안정적 사업영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도네시아가 부각되고 있으나, 원·부자재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

□ 인도네시아 섬유/의류산업 주요 현안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및 운송가격의 상승

○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의 침체

○ 5백만대 이상의 인도네시아 섬유/의류기계 평균 수명이 20년이 넘어 노후화 되어 있음.

○ 경직된 노동 제도와 노동의 질 확보 어려움

○ 중국에 이어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 인도네시아 섬유/의류산업 주요 발전과제

○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무역환경 조성 필요 (미국 및 EU와의 FTA 필요)

○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도로나 항만시설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와 항구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 건설 필요

- 업계에서는 이상적인 THC 가격인 '70달러/20피트컨테이너', 100달러/'40피트 컨테이너'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수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전기공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목 전기료는 4cent/Kwh이나 부가세 및 기타 부가금을 포함하면 8cent/Kwh에 달하여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

- 섬유업계에서는 에너지공급의 다양화를 위하여 석탄과 가스를 사용하는 자체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의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정책 필요

○ 최저임금, 해고수당, 초과수당, 해고조건 등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노동법을 사용자 입장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개선 필요

3. 방글라데시

가. 수출동향

□ ‘08년 들어 방글라데시의 섬유수출이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고 있음.

① 방글라데시의 정치 사회적 안정

- 의류산업 내 노동여건 개선 정책 시행

② 고정환율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경쟁국인 중국 및 베트남 화폐가 강세를 보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방글라데시 타카화는 페그제를 통해 안정적 환율 유지

- 아울러 초강세를 보이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유럽 수출 역시 호조

③ 대미 무관세수출 제도 활용

- 미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

- EU 역시 기존 GSP제도 정비를 통해 방글라데시산 섬유류에 대한 특혜를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방글라데시 섬유의류 산업은 총수출에서 의류수출비중은 7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큼.

○ 전체수출의 90%이상이 미국과 EU로 집중

- 2007년 기준 대미 수출이 33.3%, 대EU 수출이 60%

○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의 의류수출은 woven에서 knit로, 미국에서 유럽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유럽의 GSP영향과 스웨터 제품의 대유럽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방글라데시 섬유류의 대미 및 EU시장 수출점유율 변화〉

(단위 : %)

구 분	국가	2003	2004	2005	2006
EU 점유율	방글라데시	6.6	7.5	6.6	7.7
	캄보디아	0.9	1	0.9	0.9
	인디아	5	5	6	6.3
	파키스탄	1.7	1.8	1.4	1.5
	스리랑카	1.5	1.6	1.5	1.6
	베트남	1.1	1.3	1.3	1.7
미국 점유율	방글라데시	2.8	2.8	3.2	3.8
	캄보디아	2	2.1	2.4	2.9
	인디아	3.3	3.4	4.3	4.4
	파키스탄	1.6	1.7	1.8	1.9
	스리랑카	2.3	2.3	2.3	2.3
	베트남	3.7	3.7	3.8	4.3

자료원 : 미 상무부, 유럽통계청

□ 방글라데시는 미국 및 EU이외에도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으로부터도 GSP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은 아직까지 미미

○ 2007년 대캐나다 수출은 4억불 정도로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10%미만이나 2004년 이후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보여, 중국에 이어 2위의 대캐나다 의류 수출국임

○ 일본시장에서는 80%이상을 중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GSP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했지만 최근 중국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싱대체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주요국별 수출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5-2006				2006-2007			
	Knit	Woven	계	비중(%)	Knit	Woven	계	비중(%)
미국	617,957	2,010,751	2,628,708	33.3	762,262	2,284,744	3,047,006	
EU상위6개국	2,434,888	1,778,481	4,020,719	50.1	2,736,800	1,747,037	4,483,837	
- 독일	992,304	696,848	1,689,152	21.4	1,102,951	760,533	1,863,484	
- 영국	401,988	355,752	757,740	9.6	489,203	404,608	893,811	
- 프랑스	436,443	204,545	640,988	8.1	475,800	201,962	677,762	
- 이태리	226,143	113,226	339,369	4.3	268,136	139,844	407,980	
- 네덜란드	216,920	131,880	348,800	4.4	241,360	136,570	377,930	
- 벨기에	161,090	83,580	244,670	3.1	159,350	103,520	262,870	
캐나다	188,550	179,670	368,220	4.7	200,700	207,900	408,600	
일본	4,910	12,980	17,890	0.2	5,380	15,310	20,690	
합 계	3,816,980	4083,820	7,900,800	100.0	4,553,600	4,657,630	9,211,230	100.0

자료원 : EPB

나. 정부의 섬유산업 지원정책

□ 수출가공공단내의 Tax Holiday

○ 다카, 치타공 지역등 6개의 수출가공공단내 수출제품을 생산한 사업장은 10년간 법인세 면제

* 수출가공공단 지역을 현 6개에서 추가로 확대 계획

□ 관세면제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

□ Cash Incentive

○ 방글라데시산 원자재를 이용하여 섬유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음.

- 방글라데시 국내 직물제조. 수출업체에만 해당됨.

- 당초 동인센티브는 25%였으나, 방글라데시 재정악화 및 차별대우 문제제기로 인하여 2002/2003 회계기간동안 15%로 감소하였으며, 2003/2004 회계기간동안 10%, 2004/2005 회계기간동안 5%로 감소

□ 부가가치세 면제 : 2004년부터 수출기업에 부가가치세 면제

□ 기타 인센티브

○ 수출기업의 경우 가스요금 부가가치세의 80%, 수도 및 전기사용료의 60%가 감면되며, 보세창고내 물품의 통관 및 운송비용의 전액이 면제됨.

□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독자브랜드 개발, 국가이미지 개선작업 등

○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물류 개선작업

- 현재 120~150일이 소요되는 리드타임을 최대 90일로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

- 치타공 항만 물류개선작업, 도로망 및 통신 인프라 확충, 전략산업 투자 등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에 박차

다. 현안사안 및 업계 동향

① 중국 등 수출경쟁국의 가격상승

□ 현지진출 우리기업 섬유업계 반응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으로 대방글라데의 주문물량 증가 기대

- 2008년 수출은 오일가격 상승, 수출가공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사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 최대경쟁국인 중국의 2008년 신노동법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 인도네시아의 경제불안 등의 반사이익으로 대미 및 대EU 시장 스웨터 및 니트 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20%내외의 수출증가 기대

□ 현지 섬유업계 반응

○ 경쟁국 대비 수출호조여건에도 불구 노동쟁의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급격한 수출증가는 기대치 않고 있음.

- 대표 섬유협회인 BGMEA 및 BKMEA는 바이어들에게 최소 10%정도 이상의 수출가격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

- 한편, 대부분의 섬유수출기업은 10%의 수출가격 인상에도 불구 수출경쟁국인 중국을 비롯, 캄보디아, 베트남산의 가격상승으로 방글라데시의 수출경쟁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

□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계는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압박 등을 이유로 의류제품 수출 시 최저가격제 도입 결정

○ '08.5월 방글라데시 편직의류 제조업계는 6월 1일부터 수출품에 대한 최저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 티셔츠, 울 및 면 스웨터 등 편직의류가 대상 품목

-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에 따라 생산비 압박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업계의 보호를 도입 취지로 내걸었으나, 중국 등 경쟁국 제품의 가격상승 추세에 따라 구미 바이어들이 자국산 제품에 가격인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됨.

- 최저가격 수준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30% 낮은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힘.

② 제3의 생산대체지로서 대방글라데시 투자증가

□ 최근 구미 바이어들은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소싱국을 3~4개국으로 축소하는 경향 (China plus 2 혹은 China plus 3)

○ 이러한 경향과 최근 베트남, 중국산 가격상승에 따라 이들 지역에 진출해 있던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로 생산기지 이전 고려

- 중국도 최근 17개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방글라데시 내 생산공장 설립 및 섬유 무역센터 건립에 관심 표명

③ 수출가공공단의 노사불안

□ 노동시장 불안 문제는 섬유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2006.6.12 노사정 MOU 합의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 노조결성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

○ 금년 1월부터 다카 수출가공공단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체불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근로지 시위 빈발

- 방글라데시 정부는 산업현장 질서유지 전담 산업경찰(Industrial Police) 설치방안 검토

- 수출가공공단내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 50%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 노조 결성비율은 수출가공공단 내 전체사업장의 30~35%에 이르러 2%대의 방글라데시 전체 노조결성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④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섬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법안 통과문제

□ New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ct 2007 (NPDA2007)

○ 동 법안 통과시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프리카 13개국, 캄보디아 등이 대미 수출 시 모든 품목의 관세면제를 받게 됨.

○ 현재 미국 섬유협회(National Texitile Association), 관련기업 및 노조의 반대, 올 12월에 있을 미대통령 선거 등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나, 동 법안 통과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다각적인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인도

가. 수출동향

□ 인도의 섬유의류 수출은 2005-06회계년에 175억불, 2006-07회계년에 187억불, 2007-08회계년에 205억불을 기록하여 순조로운 성장 거듭

○ 2005~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25%나 늘어나며 호황을 구가하였으나 2006~07년도에는 전년대비 7%늘어나는데 그침.

- 2006~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도 전체 수출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2000~01년도에 인도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비중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임.

- 2007~08년도에는 루피화 강세로 인해 많은 섬유기업이 감원, 도산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수출증가세는 9.6%를 기록

- 인도 정부는 2012년까지 수출액을 550억불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나. 정부의 섬유산업 지원정책

□ 인도의 주요 섬유정책은 '신섬유정책 2000'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수출촉진제도

○ 2005년 기존 의류파크(APES), 섬유 인프라 개발계획 (TCIDS), 통합섬유파크(ITP) 등을 흡수하여 섬유파크 (Scheme for Integrated Textiles Parks, SITP) 설립

- 현재까지 30개 프로젝트가 승인
  * 안프라프라데쉬(Andhra Pradesh)주에 4개, 구자라트(Gujarat)주에 7개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에 1개,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주에 6개, 펀잡(Punjab)주에 1개, 라자스탄(Rajasthan)주에 4개, 타밀나두(Tamil Nadu)주에 6개, 웨스트 벵갈(Weat Bengal)주에 1개가 각각 승인됨.

- 총 투자액은 289억루피이며 이중 인도 정부가 105억루피를 지원할 예정
- 수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시 관세혜택 등이 부여되며 수출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는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할 경우 10년간 법인세 혜택이 주어짐

□ 외국인 투자 촉진제도

○ 대부분의 섬유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출의무 충족 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다. 업계 동향

□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중국산 면 생산량의 감소여파로 2008년 들어 인도산 섬유제품의 수출 증가

○ 업계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섬유산업의 강자로 부상해 보자는 분위기가 강함

- 2007년 루피화 강세때 달러당 38루피까지 치솟았던 루피화가치는 현재 달러당 42루피 선까지 안정된 상태이며 대미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인도 섬유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이며 실제로 지난 3년간 투자액은 1,162억루피에서 3,100루피로 급증

IV. 우리 해외생산체제에의 시사점

□ 우리 섬유산업은 1960년대부터 우리 수출을 이끌어나가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음.

○ 그러나 80년대 말 급속한 임금상승과 인력난으로 의류 등 봉제업종을 중심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기 시작

- 90년 이전에는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쿼터를 회피하기 위해 CBI지역 등 중남미국가로의 진출이 주류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

- 투자업종도 봉제의류 중심에서 원사, 직물, 염색가공 등 섬유 전 업종으로 확대

○ 2000년대 들어서는 원부자재 조달-시장확보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해외진출 증가

- 화섬업체 등 대기업의 해외투자진출도 활발

〈우리나라 섬유산업 해외투자진출 추이〉

(단위 : 건, 천불, %)

	1990년	1990년	2000년	2007년
투자건수	13	203	734	1,787
투자금액	1,107	91,085	156,110	421,586
대중국 투자건수	-	9 (4.4)	428 (58.3)	948 (53.0)
대중국 투자금액	-	3,254 (3.6)	41,117 (26.3)	120,112 (28.5)

주 : ( ) 안은 전체에서 대중국 비중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리 섬유업계의 해외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지역은 모두 대미, 대EU 수출의 생산기지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생산여건에 부침을 겪고 있음.

○ 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섬유 해외생산기지가 되어왔던 인도네시아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등장으로 가격경쟁력을 점차 상실

- 아울러 최근에는 환율, 물가상승 등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는 추세

○ 이는 우리 섬유 해외생산이 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단순 봉제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2005년 이전 세계 섬유시장의 질서는 국가별로 수입수량이 정해지는 쿼터제가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가격, 품질 등에서 각국이 무한경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우리 섬유산업의 해외생산체제 역시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① 경쟁구도의 변화 이해

- 2005년 섬유쿼터 철폐 이후 폭등했던 중국의 수출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면서, 베트남이 부상하고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저임금 아시아국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저가제품 생산라인의 재배치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미국, 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불가피함을 의미

- 저임금 등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우리 섬유업계는 중국진출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생산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중국 내 의류 제조업의 임금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단순 가공무역 제한조치 도입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주요국 의류 제조업 평균임금 (2008)〉

(단위 : U$/시간)

국가명	평균임금	국가명	평균임금
방글라데시	0.22	중국(동부연안2)	1.08
캄보디아	0.33	필리핀	1.07
파키스탄	0.37	말레이시아	1.18
베트남	0.38	태국	1.29~1.36
스리랑카	0.43	과테말라	1.65
인도네시아	0.44	멕시코	2.54
인도	0.51	이집트	0.83
중국내륙	0.55~0.80	터키	2.44
중국 (동부연안1)	0.86~0.94	남아공	1.75

주 1. 임금은 사회보장비 및 보너스 모두 포함
2. 각국 화폐 대비 미 달러 환율은 2008.3.31일자 환율 적용
자료원 : Emerging Textile

- 중국 외에도 아시아 섬유수출국들은 전반적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식량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산비 압박에 직면 → 임금인상 불가피

②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해외생산기지는 주로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2005년 섬유쿼터 해제 시 이들 주요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잠식이 이루어지면서 여타국의 섬유산업은 존폐위기에 몰렸던 경험이 있음.

- 2008.1.1일 EU가 이미 대중국 섬유쿼터를 해제한 데 이어, 2009.1.1일부로 미국이 대중국 섬유쿼터를 해제하게 되어 있어 세계 섬유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공급선을 유지하되, 미국과 EU 외 제3의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시장 편중에 따른 리스크 해소 노력 필요

③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 구미바이어들의 최근 소싱행태는 단순 제품공급보다는 제품개발 - 물류/유통 - 재고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Full Package" 구매이며, 제조업체에 디자인 개발까지 일임하는 형태로 발전 중
- 바이어 오더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시장여건과 변화, 트렌드 분석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생산 외적 경쟁력 제고 필요
- 아울러 경쟁이 심화되는 저가 및 단순 봉제제품 시장에서 벗어나 고가 및 기능제품 시장을 신규개발하는 노력 필요

④ 지역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생산라인 배치

- 각 국가별로 섬유 생산기지로서의 위기와 기회 요인이 상존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생산라인 배치 전략 필수

〈지역별 섬유 생산기지 장단점 요인〉

국가명	장 점	단 점
중 국	- 대규모 생산기지 활용 (스트림별 상호작용 가능, 원부자재 자체조달) - 산업 인프라 양호 (항만, 물류 등) - 지리적 이점 (모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등) - 배후 거대 내수시장 포진	- 임금 등 생산비 상승 (환율절상 등 영향) - 주요 수입국과 통상마찰 (미국/EU의 대중 세이프가드) -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제한조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 섬유산업 구조조정 진행 (저가제품→고급고가제품) (생산지: 동부연안→서부내륙)
베트남	- WTO 가입 후, 대미/대EU 수입쿼터 해제 - 저임 숙련노동력 풍부 - 정부의 섬유산업 진흥정책 (인프라확충, R&D 지원 등)	- 섬유산업 스트림별 발전 미미 (봉제업 위주, 원부자재 자체 조달 부족) - 미국 등 주요시장의 견제 (미국의 대베트남 반덤핑조치 발동 가능성, 수입모니터링 제도 시행) - 도로 등 인프라 미비
인도네시아	- 주요국과 통상마찰 감소 (수량규제 등 비적용 대상) - 정부의 섬유산업 진흥정책 (노후시설교체, 전용단지 조성 등) - 활발한 FTA추진으로 시장확보 (한-아세안, 일-아세안 등)	- 가격경쟁력 저하 - 원부자재 자체조달 미미 - 산업시설 노후
방글라데시	- 저임 노동력 풍부 - 고정환율 등 안정적 거시경제 - 미국, EU 등과 특혜무역관계 (최빈개도국 무관세, GSP 등)	- 인프라 미비 (도로, 항만, 전력 등) - 치안불안
인 도	- 정부의 섬유산업 지원 (대규모 섬유파크 조성 등) - 중국산 가격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 원부자재 자체조달 가능	- 임금 등 생산비 상승 (환율절상 등 영향) - 인프라 미비 (도로, 항만, 전력 등)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 아프리카 선도시장 유망품목 및 진출확대 방안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의 통관정책과 우리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반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하라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작성자

통상전략팀	양은영 차장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부장
뉴욕무역관	김문영 차장
다카무역관	이광일 차장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과장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과장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과장
하노이무역관	박동욱 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08-018

세계 섬유시장 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발 행 인 ❙ 홍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8년 6월 9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